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삶의 이야기를 녹여 담는 스틸 아티스트 '김성석' 작가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을 주재료로 해서 조각 작품을 하고있는 김성석이라고 합니다.

작품세계의 주제는?

옛날 우리나라 조상부터 쪽 내려오던 속담이라는 것은 해학이라던가 풍자라던가 유머라던가 이 안에 다 담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원래 베이스가 농경문화잖아요. 농경문화가 바탕이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던 닭이라던가 소라던가 고양이라던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을 빗대서 까마귀가 날고 까치가 올면 반가운 소식이 오고,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고, 모든 정서에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더라고요. 속담이라는게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을 풍자해서 풀어내는게 속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에 사람을 의인법화 시켜서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작품에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 속담으로 작업을 크게 잡고 해왔죠. 그러다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속담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녹아있는 이야기들을 소재로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지금까지 쪽 해온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개인전을 하는데 저의 지인들이 전시를 축하해주겠다고 쪽 와계시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 정말 떨렸어요. 첫 번째로 서서 했던 인사말이 뭐였냐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제 몸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지금 서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덜 부끄럽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 작품을 내어놓는 일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까지, 제 마음까지, 치부까지 다 드러내어 놓는 느낌이었어요. 몸은 껍데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차라리 내 알몸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내 알몸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작품을 사람들에게 내어 놓는게 너무 겁나고 부끄럽고 실수투성인 것 같고 잘 못 만드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런 인사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노련해져서 그러진 않지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능숙해졌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도 이제 능숙해졌고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 인사말을 했던 그 순간을 그때부터 였던거 같아요. 감정선을 유지하는 연습하는 것 왜냐하면 다시 부끄럽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작품 한 점, 한 점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면서부터 완성하는 순간까지 제가 느꼈던 생각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 담아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작품 한 점 한 점이 그래서 낙서가 해지게 되고, 제목도 다른 작가들하고 조금 다르죠. 딱딱하지 않고 풀어서 제목을 짓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대표하는 색깔인 거죠. 제 색깔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에세이를 쓰게 된 계기?

제 작품이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전시장에 놓여있는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들은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구상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이렇게 힌트를 드리듯이 써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2, 3년 전부터는 해외전시에서는

못하지만, 국내전시에서는 명세표 캡션 안에 짤막하게 글을 좀 넣어놔요. 일반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오히려 제가 짤막하게 넣어 놓은 글들이 작품을 순수하게 감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지나친 배려가 방해가 될까봐 조금 망설였는데, 한 번 정도 큰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심지어 에세이를 엮어서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꾸준히 하고있는 작업이죠.

매년 전시회를 하는 이유는?

작가가 작품을 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건 작가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살아있어요. 저 쉬지 않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작업하고 있어요. 라고 세상에 알리는 거죠. 개인전을 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작가한테는 너무 즐거워요.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평생을 무대를 그리워하면서 살죠. 작가한테 무대는 전시장이예요. 작업실에서 대본을 열심히 쓰죠. 대본을 쓰고, 여기다가 음악 리듬을 입히고 또, 어떻게 뭐 재미있게 뭐 안되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입히고 입혀서 만들어서 전시장에 내놓는 것은 무대에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게 작가한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내 작품을 보고 즐거워 해주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 행복감이라는 거는 그게 창작의 희열하고 연결되어있는 모두 포함되어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시회장에서 관객과의 대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는 분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내 표현에 문제가 있나?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보려고 내 표현에 문제가 있나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품은 나는 나의 생각을 담아서 내어 놓는데 까지가 작가의 몫이고 그걸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거기서 감흥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는 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염려를 내려놓으니까 전시장에서 작품 보러 오신 분들하고 대화가 훨씬 풍요롭고 즐거워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작품을 했습니다. 라고 제 작품을 두고 처음 뵈는 분하고 서서 저는 이런 의도로 작품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나는 이 작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라고 하고, 또,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또 그분은 그분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이 아주 즐거워요. 전시장에서 제 작품을 두고 다른 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작가한테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제가 작품을 대하는 자세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 되는 것 같아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랑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도 중앙으로 서울이나 큰 대도시로 많이들 가버렸어요. 이 지역에 저 혼자 남아있거든요. 많은 기회가 있죠, 정보가 있죠, 대도시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제 정서를 만든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 많은 정보와 많은 기회와 바꾸지 않을 만큼의 제 중요한 정서가 이곳에 있는 거죠. 제가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작업을 한들 지금 하는 감정들이 작품에 제대로 우러나올 수 있을까, 내가 대도시에서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오히려 경쟁하는데 익숙해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들을 가지고 내 작품에 진심을 담아내고 올곧이 작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절대 제가 나서 자란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

어요. 저는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게 너무 당연한 거고, 소중한 거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로서 이 지역에서 어떤 재원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내가 오히려 제대로 된 작가로 성장을 한다면 전주, 완주 이 지역에 가면 김성석이라는 조각가가 있어. 이 정도 소리를 들을 정도로까지는 해봐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죠. 제가 얼마나 작업을 앞으로 길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작업은 할 것이니까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은 작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